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	보도자료	행복한 국민 행복한 공공기관

보도시점 2024.7.22.(월) 배포 2024.7.23.(화) 9:00

『(산청)산림신품종 재배단지』 시설조성 완료

-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, 꾸지뽕나무 대량생산 및 산업화 기대 -

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(센터장 이규명)는 **『(산청) 산림신품종 재배단지』**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. 본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2022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,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7월에 준공하였다.

『산림신품종* 재배단지』는 산촌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사장(死藏)되고 있는 '산림신품종'을 대량식재·생산,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* 신품종 : 식물이 나타내는 색, 크기, 모양, 맛 등의 특성 중 한 가지 이상 다른 품종과 구별되고 증식될 수 있는 것

『(산청)산림신품종 재배단지』의 사업면적은 5ha인데, 기반시설로 관리동(119㎡), 작업동(265㎡), 재배포지(5,000㎡)가 만들어져 있다. 운영·관리 주체인 『산청 틔움 사회적협동조합』은 현재 재배포지에 신품종(꾸지뽕나무)을 식재하고 있으며 부산물(잎, 가지, 종자 등)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3~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동의보감 등 문헌에 의하면 꾸지뽕나무는 폐결핵, 습진, 만성 요통, 급성 관절염의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산청군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서 재배단지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지원하였으며,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.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"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국가(산림청), 지자체, 지역주민(사회적협동조합)이 협력하여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품종심사과 재배심사팀	책임자	과 장	장용석 (043-850-3320)
		담당자	주무관	김유빈 (043-850-333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